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I. 출장 개요

1. 출장건명: 일본 현단위의 귀농·귀촌에 관한 사업 및 지역활성화와의 연계실태 및 사례조사

2. 출장목적

- 일본 현단위의 귀농·귀촌관련 사업동향 및 추진실태 파악
- 최근 귀농·귀촌자의 동향과 특성 분석
- 귀농·귀촌자가 중심이 되어 지역활성화를 추진하는 마을사례 조사

3. 출장지역: 일본 큐슈일대

4. 출장기간: 2012년 9월 3일(월)~7일(금), 4박 5일

5. 출 장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농업발전연구부	연구위원 초청연구원	박 문 호 임 지 은

6. 주요 조사내용

- 최근 귀농·귀촌자의 동향과 특성
 - 계층(연령, 직업), 유형(농업취업 중심, 농외취업 중심)
- 일본의 귀농·귀촌 정책동향 및 추진실태
 - 일본의 전후 단카이세대(베이비붐세대)의 은퇴 후 대책으로서 귀농·귀촌 관련 정책 및 이후 그들의 정착 상황
 - 현단계의 정책 및 과거의 정책과 변화내용
 - 현(縣) 및 시정촌(市町村)단위의 관련사업 추진현황

- 귀농·귀촌과 지역활성화와의 연계실태
- 귀농·귀촌자가 중심이 되어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을사례
- 마을개황, 귀농자의 현황
- 취농 및 정착과정
- 지역주민과의 관계형성
- 귀농·귀촌자의 지역활동
- 핵심리더의 활동

7. 주요일정

일 정	방문기관	업무내용
9.3(월)	○입국(서울 후쿠오카) ○큐슈대학한국연구센터 -17:00 센터 방문	○일본의 귀농귀촌과 농촌 지역 활성화의 연계
9.4(화)	○후쿠오카현청후계 인재육성실 이시카와상(담당자) -10:00 현청 방문	○후쿠오카현에 있어서의 귀농귀촌의 동향과 실태 ○후쿠오카현귀농귀촌사업수계 및 사업용 ○귀농귀촌과 농촌 지역 활성화의 연계 ○귀농사례
9.5(수)	○사가현청농산과 ○키시마 농업 개량 보급 센터 -14:00 센터 방문	○사가현에 있어서의 귀농귀촌의 동향과 실태 ○사가현귀농귀촌사업수계 및 사업용 ○귀농귀촌과 농촌 지역 활성화의 연계 ○귀농사례
9.6(목)	○쿠마모토학원대학전문가 야마우치 료이치 선생님과 면담 -11:00 연구실 방문 ○쿠마모토현청·농림수산부·담당자 지원과 타나카 준지 과장 -13:30 현청 방문 ○JA쿠마모토 중앙회 영농 지원과 -15:00 유우베르호텔 ○나카지마 토모미님(취농농가) -17:30 농가 방문	○일정 협의 ○근년의 농정과 취농동향에 대해 의견교환 ○쿠마모토현에 있어서의 지원 정책의 개요와 실적 ○관련의 통계 지표의 추이와 설명 ○쿠마모토현 취락 영농 추진 연수회(제1회)의 견학 및 소장과의 면담 ○취농의 동기, 취농시기, 경영 규모, 영농 형태, 노동력, 유통·판매처, 경제 수지등에 대해서 ○현으로부터의 취농지원금, 제도 자금, 직접 지불금등의 수급 상황
9월7일	○큐슈대학후카가와 히로시수 -10:00 연구실 방문 ○출국	○일본의 귀농귀촌과 농촌 지역 활성화의 연계

8. 면담자

○ 후쿠오카현청

大山 威 (室長) ooyama-t9831@pref.fukuoka.lg.jp

石川 博基 (企画主幹) ishikawa-h9651@pref.fukuoka.lg.jp

○ 큐슈대학

후카가와 교수님

深 川 博 史 fukagawa@en.kyushu-u.ac.jp

마쓰바라 센터장님

松 原 孝 俊 matsubara.takatoshi.414@m.kyushu-u.ac.jp

○ 사가현농업개량보급소, 사가현청

式 町 秀 明 (所長) shikimachi-hideaki@pref.saga.lg.jp

江 口 満 (経営担当係長) egushi-mitsuru@pref.saga.lg.jp

緒方 千佳 (技師) ogata-chika@pref.saga.lg.jp

橋 口 朋 代 (技師) hashiguchi-tomoyoa@pref.saga.lg.jp

○ 구마모토학원대학

야마우찌 교수님

山 内 良 一 (教授) yamauchi@kumagaku.ac.jp

○ 구마모토 현청

黒 木 隆 (七ノタ 一 長) 43kikin@nca.or.jp

藤木 新 (主 幹) fujiki-a@pref.kumamoto.lg.jp

井 上 克 造 浩 (課長補佐) inoue-k-dz@pref.kumamoto.lg.jp

紙 屋 勝 良 (主 幹) kamiya-k@pref.kumamoto.lg.jp

○ JA중앙회

高 濱 頼 光 (所長) y-takahama@jakumachu.jp

II. 출장 결과

1.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가. 청년신규취농자 정책의 목표

- 지속적으로 강한 농업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간적 농업종사자가 90만명이 필요하며, 65세이하의 연령층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2만명의 청년층 신규취농자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토지이용형 농업의 경우 전체 368만ha 중 기간적 농업종사자가 294만ha로 전체면적의 약 8할을 담당하며, 기간적 농업종사자 1인당 10ha를 경작할 경우 약 30만명이 필요함.
- 야채, 과수등 경제작물의 경우 주업농가 54만명(1호당 기간적 농업자가 2인이라는 가정)이 요구되며, 품목류별로는 야채 6만호, 과수 4만호, 축산등 5만호, 복합 12만호가 필요하며, 여기에 법인에 의한 기간적 농업종사자 6만명을 포함하면 약 60만명이 필요하다는 것임.
- 현재 기간적 농업종사자는 186만명으로 그 가운데, 65세 이상이 59% 40세 미만이 5%로서 20~65세의 연령층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평균 2만명의 청년층이 신규취농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는 신규취농자로서 취농하는 수는 약 1만5천명이지만 약 3할 정도는 취농후 이농을 하므로 실제 취농자 수는 약 1만명으로 추산됨.
- 따라서 매년 필요한 기간적 농업종사자 2만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현재의 신규취농자를 배증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신규취농자육성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나. 청년신규취농자 육성을 위한 인력·농지에 관한 시책의 체계 및 내용

- “호별 소득보상 경영안정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인력·농지계획 작성사업”으로 지역농업의 방향 및 금후 지역의 중심이되는 경영체등을

정한 인력·농지플랜을 작성에 필요한 집락의 합의형성활동을 지원함.

- 청년농업자의 정착지원을 위해서 신규취농 유형별 단계별 정착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프랑스의 제도 도입)
 - **청년취농급부금(준비형) 지원:** 청년의 취농의욕을 환기시키기 위해 취농전의 연수기간(2년이내)의 소득을 확보하는 급부금을 교부(연간 150만엔). 연수후 1년이내에 경영개시또는 농업법인등에 취농하지 않는 경우 전액 환수조치
 - **청년취농급부금(경영개시형) 지원:** 취농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이 불안정한 취농후 (5년이내)의 소득을 확보하는 급부금을 교부(연간 150만엔 이내). 이 자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45세 미만이어야 하며, 본인의 경영계획에 대한 심의회의 인증절차를 거쳐 지원이 이루어짐. 취농후 소득이 250만엔 이상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않으며, 부모로부터의 경영계승이나 부모의 경영과 독립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농(農)의 고용사업 지원:** 청년의 농업법인에의 고용취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이 고용취농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실천연수(최장2년 연간 120만엔)에 필요한 경비를 조성. 이 경우 고용취농자는 교부금 월 10만엔 포함 월 16~20만엔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추정됨.
 - **경영기반강화자금으로서 슈퍼-L 자금의 금리부담경감조치:** 인력·농지플랜에 지역의 중심이 되는 경영체로서 위치를 부여받은 인정농업자에 대하여는 대부 초기 이자조성을 통해 5년간 무이자 지원
 - **농업교육 강화:** 금후 지역의 리더로 될 인재층을 두텁게 하기위해 취농희망자난경영발전을 꾀하는 농업자에 대하여 고도의 경영력, 지역리더로서의 인간력등을 양성하는 상급 농업경영자교육기관등에 대하여 지원
 - **기계·시설의 도입지원:** 경영의 복합화, 다각화등에 필요한 기계나 시설지원은 호별소득보상제도에 근거한 경영체 육성지원사업으로 보조율 50%, 무이자 지원, 500만엔 한도에서 지원
 - **농지의 확보 및 취농상담:** 취농하려고 하는 시정촌과 상담하여 지역

의 “인력·농지플랜”에 참여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 농지임대차 지원 및 법인의 정직원으로 취농지원등 사전준비지원

표. 취농단계별 신규취농대책 개요

	취농준비 (고교 졸업후 지원)	취농개시		경영확립
		법인취업	자영취업	
소득확보	청년취농급부금	농의 고용 사업	청년취농급부 금	
기술습득	농업경영자육성교육			
기계·시설의 도입	-	-	취농지원자금	슈퍼-L자금
농지의 확보	농지의 확보 및 취 농상담		농지이용집적 원활화사업등 에 의한 지원	

다. 신규취농 계획 인증제도

○ 개요

- 장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농업경영의 담당자로서 어울리는 인재를 확보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취농계획, 도도부현의 취농촉진 방침에 맞는 취농계획의 인정을 받도록 하여, “인증취농자” 및 “인증농업자”(법인취업의 경우)로 지정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중점적인 지원 시책을 펼치고 있음.

○ 인증의 대상자

- 지역내에 취농하려고 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서 취농하거나 농업법인에 취업하려고 하는자

○ 취농계획의 작성

- 장래의 영농목표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수, 어떠한 자금이 필요한가등의 계획작성

○ 취농인증자의 메리트

- 취농지원자금 무이자 대부 : 취농준비자금, 연수자금, 취농시설등
- 농용지 이용조정: 농지알선

- 관계기관의 체계적인 지도
- 취농인증 절차
 - 취농계획 작성(소정 양식)→농업개량보급센터·시정에 제출→현에서 계획의 심사(심사회 운영)→취농계획 인증

2. 후쿠오카현 사례

가. 신규취농자의 추이

- 신규취농자의 전체 추이를 보면, 1990년대는 100명 이내였으나 2000년 149명, 2005년 159명, 2010년 206명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 연령분포는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자의 비중이 90%에서 80%내외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농업취업이 증가한 데 기인.
- 2010년 기준 취농자의 유형은 선친의 가업을 계승하는 U턴형의 비중이 46.6%를 점하고 있으며, 비연고 농업신규취업자가 41.3%(그중 법인취업이 28.2%), 신규학졸자 13%를 점하고 있음. 비연고 농업신규취업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법인 취농에 대한 지원정책에 힘입어 고용취농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한 현상임. 2011년 현재 고용취농자의 수는 58명으로서 전년도에 16명에 비하여 3.6배의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나. 신규취농자의 멘토링제도

- 지역농업의 리더양성을 위해 현 지사가 인증하는 농업사 및 농업청년그룹을 양성하고 있는데, 농업사는 지역최고 리더로서 지도 농업사, 35세 미만의 청년층 리더로서 청년농업사 제도를 두고 이러한 후계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업청년그룹을 양성하고 있음.
- 2011년 현재 지도농업사는 80명, 청년농업사는 70명, 청년그룹 참여자 수는 319명에 이름. 신규취농자의 경우 대부분 이러한 지도농업사의 지도를 받아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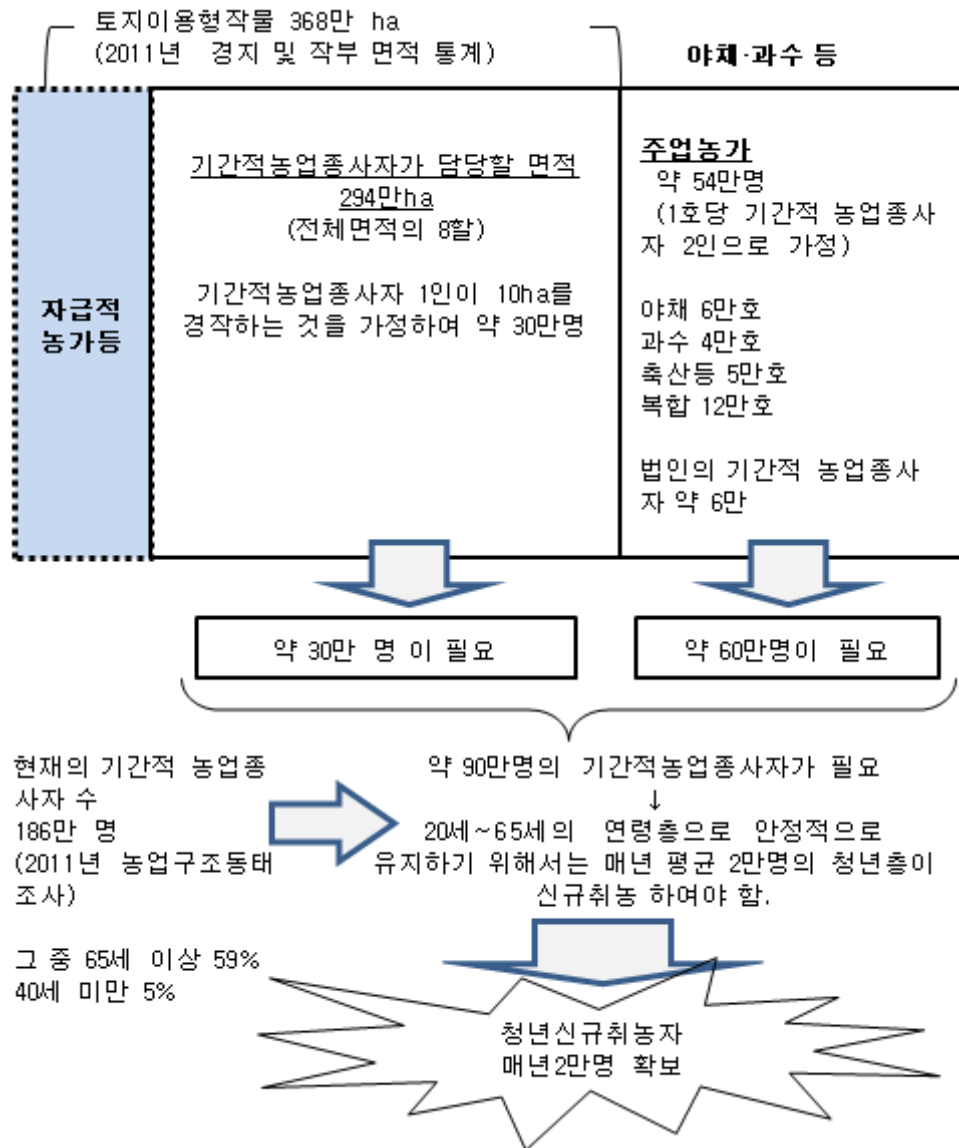
다. 후쿠오카현 농업진흥추진기구의 기능

- 현내의 취농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조직(공익재단법인)으로서, 상담창구활동, 농업체험 및 각종교류회를 통한 사례소개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지보유합리화 법인으로서 농지의 알선업무도 담당하고 있음.

라. 기타 면담 내용

- 후쿠오카현의 신규취농자 비율은 일본 전체 평균과 비슷함.
 - 단, 후쿠오카는 신규취농자 가운데 39세 이하가 많지만, 일본 전체적으로 보면 4-50대가 많음.
- 후쿠오카현 500만 인구, 소비자와 가까워 입지여건 좋은 편임. 고수익 담보되는 원예농업지대임.
- 2007~08년 취농 급증 이유: 실업자 대책으로서 보조정책 펴서 급격히 늘어난 것임.
- 후쿠오카현 취농자는 평야지대 쪽에는 잘 오지 않고 도시부(도시근교)에 집중되는 것이 해결 과제임.
- 농업진흥공사에서는 신규취농 관련 제도 상담 및 알선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전문지식이 미흡하여 문제임.
- 일본의 경우 귀농자 유입으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 나라·현·시정촌 사업 유치에 잘 이뤄지는 경우는 보기 드뭄. 사업이 공평하게 나눠 가져가는 형태이기 때문임.
 - 만약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면 시정촌 담당 공무원의 역량에 따른 것이라 추측.
- 일본은 도시 문제의 경우 65세 정년 연장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음. 또한 농업 자체가 고용 창출이 많은 산업은 아니라 생각하므로 귀농으로 인한 도시문제 해결 측면에서는 깊이 고려하지 않았음.
- 역귀농(귀농 후 다시 도시로 되돌아가는 것)의 주요 이유는 예상보다 적은 수입, 지역주민과의 크고 작은 갈등.
- 신규취농자가 농촌에서 2년 간 교육기간 동안 지역에 녹아드는 것이 중요.

그림 1. 일본의 청년취농자 확보목표



자료: 후쿠오카현

3. 사가현 사례

가. 신규취농자의 추이

- 신규취농자의 전체 추이를 보면, 2000년대 전반까지는 100명 내외로 유지되어 왔으나, 2008년 116명, 2010년 160명, 2012년 186명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연령분포는 2012년(2011년 하반기~2012년 상반기)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자의 비중이 71%를 점하고 있으며, 평균 신규취농자 연령은 36.8세인데, 전년도에 비하여 평균연령이 3세정도 높아졌음. 연령계층 구간별로는 36~40세 계층과 50~60세 계층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36~40세 계층은 법인취업, 50~60세 계층은 U턴형이 많음.

- 2012년 취농자의 유형은 선친의 가업을 계승하는 U턴형의 비중이 47.3%를 점하고 있으며, 비연고 신규취농자가 43%, 신규학졸자가 9.7%를 점하고 있으며, 비연고 신규취농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신규취농자의 경우 40세 이하가 80%를 점하고 있음.
- 최근, 법인 취농에 대한 지원정책에 힘입어 고용취농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한 현상임. 2012년 기준 고용취농자의 수는 53명으로서 전년도의 33명에 비하여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신규취농자의 영농부문은 미맥 27%, 노지야채 24%, 시설야채 18%, 축산 15%의 순임.
- 미맥부문의 신규취농자는 대부분 지역의 특산물인 양파 등과의 복합영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야채재배의 신규취농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임.
- 축산부문의 경우 70%가 법인취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나. 신규취농관련기관의 역할분담

- 취농의 전반적인 사항: 재단법인 사가현 청년농업자 육성센터, 사가현 생산진흥부 농산과, 사가현 농업대학교
- 농지와 관련 사항: 시정 농업위원회, 사가현 농업회의, 사가현 농업공사
- 지역정보에 관한 사항: 지역농업개량보급센터, 시정 농정담당과, 농협
- 농업법인 취업: 전국 농업회의소 신규취농상담센터 및 지역사무소
- 주택: 시정의 신규취농 담당부서

다. 챌린지 취농지원사업 추진현황

- 국가사업의 “사가현 종합계획 2011”의 중점사업으로서 “챌린지 취농지원사업”을 개설하여 농가의 후계자, 신규참입희망자, 정년전후의 취

농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취농에 대한 계몽활동, 취농에 대한 정보제공, 신규취농자의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을 개설하고 있음.

- 현황동비: 관계기관·단체와의 검토회의 취농계획에 대한 인증회의 등 회의비 예산배정
- 지구활동비(실시주체: 농업개량보급센타·농림사무소): 농업개량보급센타의 취농상담활동 및 시·정(市町)·농협등과 제휴한 취농상담활동 지원
 - 농업고교제휴강화활동(농업개량보급센타): 농업고교와 제휴한 취농계몽활동에 지원
 - 생산부회등 제휴활동(농업개량보급센타): JA생산부회의 신규취농자의 확보 및 육성을 위한 활동지원
 - 신농업인 선도활동지원(농업개량보급센타): 취농후 5년정도의 신규취농자를 대상으로 한 경영 및 기술의 조기확립을 위한 개별지도 및 과제해결을 위한 지원
 - 신규취농희망자 양성강좌(실시주체: 농업대학교): 신규취농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업체험강좌를 개최
- 신규취농 계몽활동사업(실시주체: JA, 시·정): 시·정, 농협, 협의회 등의 취농계몽세미나 및 취농상담회의 실시등 지원(확보대책위원회, 세미나개최, 개별상담회, 선진농가로의 파견등)
- 신규취농자에 대한 현의 독자적인 자금지원사업으로서 “청년농업자취농촉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취농연수자금을 빌린 인정농업자가 연수종료후 1년 이내에 현내에 취농하고 5년 이상 농업을 계속할 경우 에 상환액의 1/2을 감면조치

라. 기시마 농업개량보급센타

- 농업개량보급센타는 현의 직속기관으로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센타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신규취농자 양성 관련 업무내용>

□ 취농전 단계

○ 의욕양성기

- 농업고교생을 대상으로 농업교류회를 개최하여 선진농가 및 청년농업자와 대화의 장 마련
- 청년농업자 그룹의 동계연수시 농고생 참가 프로젝트 발표등 교류 추진
-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체험 및 식농교육을 통한 농업의 이해 양성, 취농상담회 개최

○ 취농준비기

- 농업고교생 및 농업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농가파견 연수 접수
- 취농상담(관련기관과 정보의 공유화), 취농계획의 수립 지원, 보조사업 및 제도자금의 상담, 가족경영협정의 추진
- 관련기관과의 업무 제휴
 - 시정촌: 보조사업의 소개
 - 농업위원회: 농지의 알선
 - 농협: 농업강좌, 신규취농강좌, 보조사업 및 제도자금의 소개

□ 취농후 단계

- 신규취농자에 대한 세미나 개최
- 취농 5년까지의 청년농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취농연수 개최
- 청년농업자 그룹활동을 통한 자질 향상(프로젝트 활동, 부문별 연수, 농산물 직판)
- 개별 순회에 의한 기술적지원
- 경영관리 연수의 개최, 보조사업 및 제도자금의 상담
- 가족경영협정의 추진
- 청년농업자 그룹의 활동지원, 보조사업활용에 대한 지원
 - 농업위원회: 농지의 알선, 가족경영협정 및 인정농업자의 공동신청 추진
 - 농협: 각 생산부회 활동을 통한 기술적 지원, 농협 청년부, 여성부의 활동지원

※ 취농상담자 조사내용

- 상담자의 개요: 직업, 가족, 농지, 농업경험
- 상담내용: 동기, 작목, 희망지역, 연수, 연수장소, 필요농지면적, 자기자본, 기타 개인정보

마. 기타 면담 내용

- 농업개량보급센터에서는 취농준비기 대상자(고등학생, 대학생)에게 합숙 연수를 진행(고등학생 1주일 간, 대학생 2주일 간). 또한 취농계획서 작성 시 도움을 주고 있음. 이미 취농한 사람들은 새로운 작물 도입이나 규모 확대 시 상담을 많이 받고 있음.
 - 보조금을 받으려면 1년 전부터 계획하여야 하며, 이를 받으려면 보조금 관련 계획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센터에서 컨설팅.
- 취농자에 대한 보조사업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조금의 보조율은 국가보조금은 50%, 현보조금은 43%.
 - 국가보조금 사업은 50% 자부담, 현에서 하는 사업은 57%는 자부담인데, 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자부담비가 없을 경우 센터에서 무이자 자금 제공 관련 상담 진행). 현 사업의 경우 전체 경비의 1/3이 현 자금, 전체 경비의 1/10이 시정촌 부담임.
- 지역별로 청년농업자클럽(39세 이하)이 있으며, 마을에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음. 활동예산을 시에서 일부 지원하며 자체 회비도 있음.
 - 활동내용으로 어린이들 체험 학습, 지산지도 운동 홍보·교육, 마을 및 시에서 하는 이벤트 직판장 운영 협력 등이 있음.
 - 청년클럽에서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지만 친구 만들기가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임.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 cf) JA농협에서는 장년층부회가 있음(40~50대).
- 농업에 관심이 있는 농업고교 학생들을 청년농업자 클럽 사람들과 연결해준다든가 첨단 농업자 강연, 의견교환 등에 중점 두고 있음.
- 보급센터에 현 외 지역에서의 귀농 상담이 많은데, 이 지역의 경우 농지 경쟁이 치열하여 지자체, JA, 농협과 상담하여 그 사람들이 농지확

보 가능할지 상담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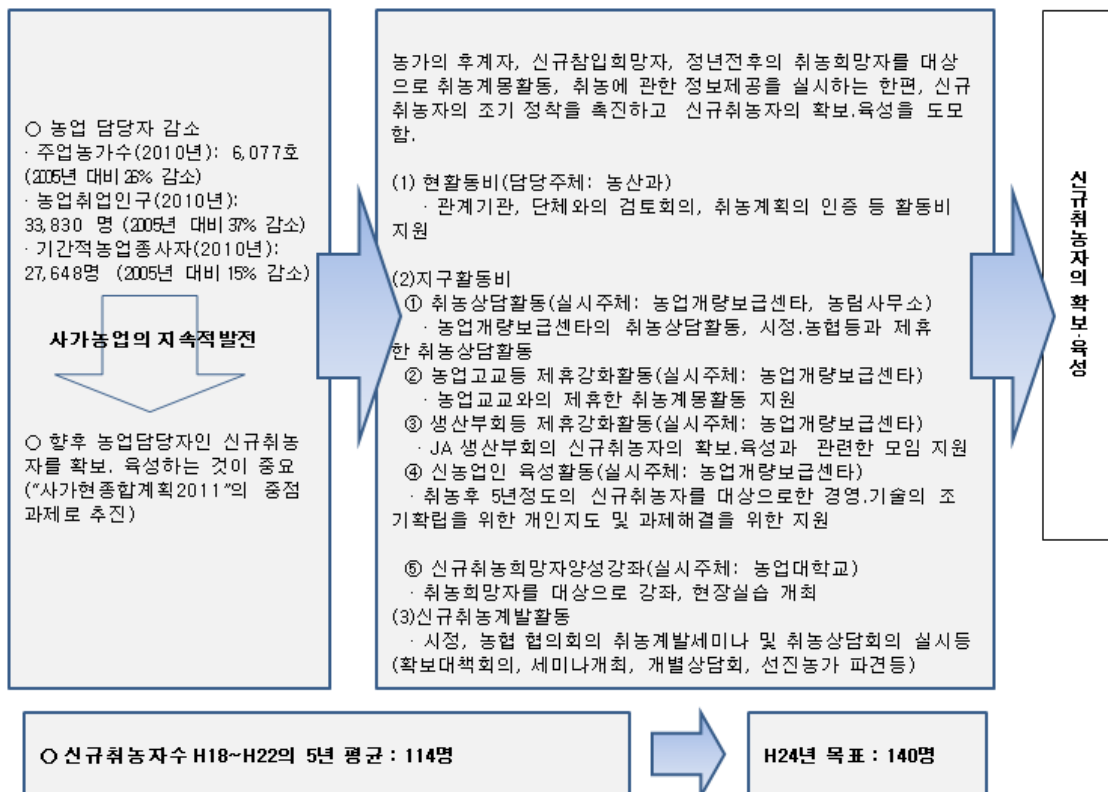
- 유턴자 가운데 부모의 영농 규모가 큰 경우가 많음.
- 신규취농자 가운데 법인 취농이 많은 편인데, 농업법인 다섯 개 가운데 두 개는 가공까지 하며, 세 개는 생산 중심임.
- 신규취농 시 농지 확보, 작물 선택 등 주요한 부분에 대해 상담하고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시정촌 담당자들과도 정보를 공유하여 신규취농자에게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 고려.
 - 농지 이외의 주된 상담은 보조금, 작물 선택 관련. 작물 바꿀 때 새로운 작물 농가를 소개하여 연수받는 제도 있음.
- 신규취농 기술 연수는 보통 농가 연수. 현의 농업대학에서 한 품목을 정해서 “신규취농양성강좌” 추진(11월, 2월 두 번 일주일씩 일반인 대상 모집. 10명 정도).
- 신규취농자 가운데 70%는 정착하고 30%는 정착 실패하는데, 이곳은 현에서 통계를 잡은 것은 없음. 취농자가 그만두는 주된 이유는 수입 때문임. 주로 이곳에서 농업을 그만두고 다른 일에 종사하는 형태.
 - 보조금을 받고 그만둔 사례는 없음.
 - 농업대학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농업 외에 다른 일에 종사할 경우 학비는 반환해야 함.
- 50대 이상의 취농자들은 농업의 품목별 생산부를 통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음.
 - 농협청년부도 있어서 젊은 취농자들의 기술습득 장이 되기도 함.
- 신규취농자(귀농인)이 인터넷 판매 정도는 하고 있으나, 이들에 의한 지역발전, 사회활동 확산 등의 개념은 거의 없음.
- 신규 취농 시 계획서를 보급센터에서 같이 작성해 주고 보급소에서 추천장을 첨부하여 현청으로 올라옴. 현청 심사회에서 심의 후 지원 여부 결정. 심사회 구성은 다음과 같음.
 - 농산과(예산 배분), 축산과, 원예과, 유통과, 생산자지원과의 핵심 직원, 농협회의소 관련자, 사가JA중앙회
- 심사회 통해 인정취농자가 되면 그때야 비로소 무이자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음. 사가현은 자금 지원처가 두 가지로 분리됨.

- 무이자 자금 지원처 1: 사가현 청년농업자육성센터(주로 농업연수 관련 자금)
- 무이자 자금 지원처 2: 사가현청 생산자지원과(주로 시설자금 지원)
- 무이자 자금은 전부 나라에서 주는 돈이라 변제를 해야하는데, 생산자지원과에서 지원한 자금은 연체한 적이 없음. 그러나 연수자금으로 한 경우 자꾸 연체되어서 고리(12.5%)로 이자 부과.
- 최근 생산부회 연계 강화활동을 지원 사항에 추가. 양파, 딸기 등 각종 부회 회원들이 감소. 후계자 양성 차원에서 이런 활동에 예산 지원.
- 사가현 독자 사업으로 '젊은 농업자 취농 촉진사업' 시행.
 - 연수자금의 경우 농업대학은 월 5만 엔 상한, 농가 연수는 월 15만 엔 상한 무이자 대출 가능.
 - 취농을 하면 몇 년 상환할지 결정하여 상환을 해야 하는데, 취농한 지 5년이 지나면 빌린 연수 금액 가운데 50% 감액해 줌(감액의 4/5는 현이, 1/5 시정촌 부담).
- 기시마군 신규 취농자 71명으로, 사가현에서 가장 많음.
 - 카라츠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이곳이 사가현 내에서 젊은 층 신규 취농이 비교적 많은 곳(딸기, 화훼).
 - 삼신지역은 전형적 도시근교 지역으로, 현 외에서 상담이 많음. 젊은 층이 많지는 않음.
 - 기시마군은 규모가 큰 지역이라 농업하기가 좋고, 그 지역 자체가 다른 데 비해서 농업이 활발한 지역임.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무원 사무소(야꾸바)가 활발하여 상담도 잘 해줌.
- 신규진입자가 성공하기에는 일본도 어려움. 실패 이유는 기술이 낮기 때문이라든가, 조력자가 전혀 없는 사람, 자금력이 너무 약한 사람의 경우 실패 확률이 있음. 소수이긴 하지만 우울증 때문인 경우도 있음.
- 행정에서는 귀농자 집 마련과 관련하여 관여하는 바 없음. 거주지는 개인이 알아서 찾음(농가연수할 때 농가에서 소개를 해주는 등).
- 중산간지역의 경우 정보 발신도 하지 않고 외부에 대해 굉장히 폐쇄적이라서 귀농 관련 정책이 실패한 바 있음.

※ 사가현 기시마군 신규취농자 면담

- 津田正孝(츠다 마사타카) 氏. 29세.
- 농업고등학교를 졸업. 고등학교 진학 시 이미 취농 결심.
- 청년 농업자 그룹(40여 명)의 회장을 맡고 있음.
- 시설을 짓고 꽃 재배.
 - 부친이 다마네기(양파) 대농이었는데 양파보다는 자연스레 다른 작물에 관심을 두다가 꽃 재배 시작.
 - 지식을 얻기 위해 농가 연수, 농업대학을 활용. 연수 시 급료를 조금 받았음.
 - 시설을 갖추는 데 3,000만 엔 소요. 현재 연간소득 약 1,300만 엔.
- 수확한 꽃은 전량 시장에 팔고 있음. 소량 주문에 대응하여 판매하는 것이 힘들어서 직판은 하고 있지 않음. 판매에 대한 불안은 없음.
- 기시마 내 꽃 재배 농가 다섯 농가 있음. 함께 정보교환, 농장견학 등.
 - 규슈 내 가까운 지역 농장 견학.

그림 2. 사가현의 2012년 챌린지 농업지원사업 개요(농산과: 2,954천엔)



자료: 사가현

4. 구마모토현 사례

가. 신규취농자의 추이

- 신규취농자의 전체 추이를 보면, 2005년 277명에서 2008년 159명까지 감소되었으나 2010년 303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1년 취농자의 유형은 선친의 가업을 계승하는 U턴형의 비중이 54.1%를 점하고 있으며, 비연고 신규취농자가 19.5%, 신규학졸자가 26.4%를 점하고 있으며, 비연고 신규취농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법인 취농에 대한 지원정책에 힘입어 고용취농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한 현상임. 2012년 기준 고용취농자의 수는 59명으로서 전년도의 32명에 비하여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나. 신규취농대책의 방향

- 신규학졸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취농 촉진활동의 충실을 도모하고, U-turn, 신규참입자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시스템을 정비하여 신규취농자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취농촉진활동의 추진
 - 농업대학교의 커리큘럼의 충실과 함께 지역의 농가 및 농업고교 등과 제휴하여 취농에 대한 의식교육 강화
- 지원시스템의 정비
 - 현 신규취농지원센터의 상담기능 강화 및 지역단계의 상담체제의 정비
- 연수 교육의 충실
 - 농업계 학교의 취농에 대한 교육내용의 충실을 도모하고 사회인을 대상으로 한 연수 강화
 - 지역에서 신규취농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JA, 농업법인(NPO법인)등에 의한 보다 효율적인 연수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등 취농희망자가 단기간

에 농업경영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연수체계의 충실

○ 연수후 취농정착지원

- 원활한 취농정착을 위하여 취농계획의 작성지원, 농지의 알선, 시설·기계의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시정촌, 농업위원회, JA등 관계기관과 제휴하여 구체적인 지원책 강구

○ 청년농업자의 육성

- 농업경영자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기술연수회의 실시 및 과제 해결 학습, 청년농업자의 조직활동을 지원

○ 취농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대책 수립

- 타 산업으로부터의 취농희망자의 증가 및 취농희망자의 연령의 다양화, 취농목적의 다양화에 따른 지원책의 충실
- 신규학졸, U-턴: 자립지원, 경영감각 양성, 원활한 경영이양 지원등
- 신규참입자: 기술습득, 경영확립, 지역정착지원

다. 신규취농관련 기관의 역할분담

- 구마모토현의 신규취농 관련업무는 신규취농 관련사업은 현의 공익재단법인인 구마모토현 농업공사내에 “신규취농지원센터”라는 독립부서에서 총괄하여 one-stop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 “신규취농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센터에 취농상담원, 지역별 취농전문상담원을 배치하고, 취농상담회의 개최, 취농상담, 연수 알선, 전입지역과의 코디네이터 기능, 가독립 취농지원보조금의 교부(가독립기간에 일정 조건의 농지, 하우스 임차에 대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현내 각 지역(시·정)의 지역진흥국 농업보급진흥과와 JA와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신규취농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라. 취농단계별 취농지원대책의 내용

☐ 취농준비단계

- 취농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를 “취농지원센터”에서 총괄하며, 각 시정촌의 농정주관과와 농업위원회, JA와 제휴하여 취농상담, 단기연수, 취농체험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취농지원체제사업)
- 개별 취농상담에 대응, 연수기관, 취농기관의 소개, 취농상담회 개최, 인정취농계획책정 지원

○ 연수사업

- 농업대학교 신규취농지원연수(현사업)
- 농(農)의 고용사업(법인 취업지원, 국가사업)
- 지역에서 양성하는 신농업인육성종합추진사업(선도농가, 법인등의 연수지원, 현사업)
- 청년취업급부금제도(취농준비금 지원, 국가사업)

☐ 가독립·자립취농단계

○ 보조금

- 가독립 취농지원보조금(취농 2년간 영농자금 지원, 현사업)
- 신규취농자 보조사업(시설 및 기계도입, 국가사업)
- 청년 취농급부금사업(경영개시형 보조, 국가사업)

○ 취농정착을 위한 조언·지도업무:

- 현 농업보급·진흥과등에 의한 조언·지원활동
- 지역신규취농상담자에 의한 순회지도

○ 융자제도

- 취농지원자금 대부금(무이자 융자, 현사업)

☐ 사업유형별 지원자금의 내용(융자지원)

○ 취농연수자금

- 농업대학교 5만엔/월, 선진농가 15만엔/월, 지도연수(청년) 200만엔
- 청년 4년거치 12년 상환, 청년이외 2년거치 7년상환
- 취농준비자금(주거이전, 자격취득, 취농선의 조사등 취농준비자금)
 - 200만엔 한도에서 지원
 - 청년 4년거치 12년 상환, 청년이외 2년거치 7년상환
- 취농시설자금(기계, 시설구입자금)
 - 청년(40세 미만) 3,700만엔, 청년이외(40~65세) 2,700만엔
 - 5년거치 12년 상환

마. 구마모토 JA 취농연수사업의 사례

☐ 연수생의 취농상황

- 연수생 149명중 70%가 신규취농자이며, 연수자 중 실제 취농자는 94명(63%)으로 나타났다.
- 미 취농의 원인은 농지·농기계·자금등 의 준비부족문제(55%), 연수도중 취농에 대한 의욕상실에 따른 중도사퇴(45%)

○ 연수생과 인턴쉽 제공농가의 특징

- 연수생: 20~39세(70.8%)의 연령이 중심을 이루며, 40대 이상은 28.2%임.
목표 영농유형은 야채(52.4%), 유기재배(19.5%)가 많음.
- 인턴쉽 제공농가: JA로 부터의 추천 또는 본인이 신청한 농가로서 기술지도만이 아니고, 창고를 개조하여 숙박시설로 제공, 농지, 시설,주택의 차입지원, 취농후 공동육묘, 공동작업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교육지원측면에서 부실한 농가도 발생

☐ 연수생의 모집 및 연수과정

- 모집(12~1월)→서류심사(2월)→체험연수(2월)-면접(3월상순)→채용결정(3월중순)→개시식(4월 상순)→농업실습(4월~익년 3월)
취농지원세미나(5월~익년 2월)
취농준비(5개월 전)→수료식(익년3월하순)→영농개시식(익년 4월 상순)

□ 연수관련 지원내용

○네트워크 조직

- 연수 수료후 상호부조, 취농상황 파악을 위해 연수생 독자운영방식의 네트워크조직(구마모토 신규취농자 네트워크)를 만들어 매년 3월에 정기총회를 열며, 운영비는 회원각출과 JA 및 귀농지원센터에서 지원금으로 조달

○ 연수생의 처우

- 연수생은 JA의 임시직원으로 채용하여 월급여 135천엔의 지급 외에 복리후생비 지원

○ 인턴쉽 제공농가에 대한 처우

- 연수수당으로서 월 1만엔 년 12만엔을 지급하며, JA은행의 “신규취농응원사업”으로 매월 1만엔 추가 지급

바. 기타 면담 내용

- 구마모토는 토지집중 이용형 작물이 많은 사가와는 달리 시설원예, 과수, 축산 등 다양한 농업 가능. 사가의 경우 땅이 필요하므로 신규 취농자의 장벽이 높지만 구마모토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규 참입 장벽이 낮은 편.
 - 시설원예의 경우 땅이 좁아도 가능하지만 기술을 많이 필요로하는 농작업이라 도와줄 사람(스승)이 필요. 좋은 스승이 될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 과제. 구마모토 현 예산으로 올해부터 스승에게 수당 지급됨. 구마모토는 타 현과는 다르게 시정촌마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사람을 지원하는 조직화가 이루어져 있었음.
 - 작년 약 700명 상담. 이 가운데 50%는 의향이 정확한 사람들이었음.
- 농가 출신, 학교 졸업자가 취농의 중심자였으나 앞으로는 다른 패턴의 사람들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 이에 대한 농업정책 및 지원책 마련이 과제.
- 현 사업의 특징은 나라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주고 보완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임.
 - 가령 개인에게 돈을 주는 보조사업의 경우 돈을 받았다고 신규취농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유용하게 사용하게 하계끔 사람을 연결 해준다든지 토지를 연결해주는 구체적 도움이 필요함. 나라의 정책과 그 정책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현의 정책이 들어가는 것.

- 신규 취농 '준비기간'에는 정보 및 상담이 가장 중요한 업무임. 구마모 토현은 여러 유형의 취농 희망자에게 맞춤형 시스템 갖춤. 이를 위해서는 상담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과제를 갖고 있으며 귀농하려는 의향이 무엇인지 조사하는 것이 중요(이 분야 전문가 있음 - 신규취농지원센터. 이 센터는 공익재단법인으로 현 외곽 재단, 현 보조금으로 운영).
 - 취농 의욕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수사업 시행. 연수 후에는 시간을 두고 점차 농가로서 독립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도원, 용자 등 제도 마련.
 - 취농 상담 후, 상담자가 향후 농작업을 원하는지, 농업경영을 할 것인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농작업을 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농가연수, 농업대학 연수 등을 통해 농업법인 쪽으로 취업 알선하고, 농업경영 원하는 사람들은 단기 농업연수 프로그램 등 제공.
- 취농자가 지역과 어떻게 화합하느냐의 문제 또한 중요. JA 농협에 연수기간을 뒤서 지역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연수기간이 끝나면 그 지역의 '선생님'과 관계를 만들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가독립 단계로 이행되도록 함.
- 일본에서 신규취농은 대부분 본래 농가의 뒤를 이을 사람들이 도시에 나가있다가 돌아오는 경우임. 고등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 부모 모님 등 연결고리가 있음.
 - 거처도 지인을 통해 알아서 구함. 따로 정책은 없고, 주택 소개만 함.
- 급부금 제도들은 법률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고 (비영속적인) 정책적 성격이 강함.
 - 취농지원자금으로 하드웨어 관련(기계 등)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은 법률에 근거하는 영속적인 성격이라 볼 수 있음.
- 현재 일본 농업정책은 인정농업정책에 집중하는 추세. 취농 정책도 이것과 연결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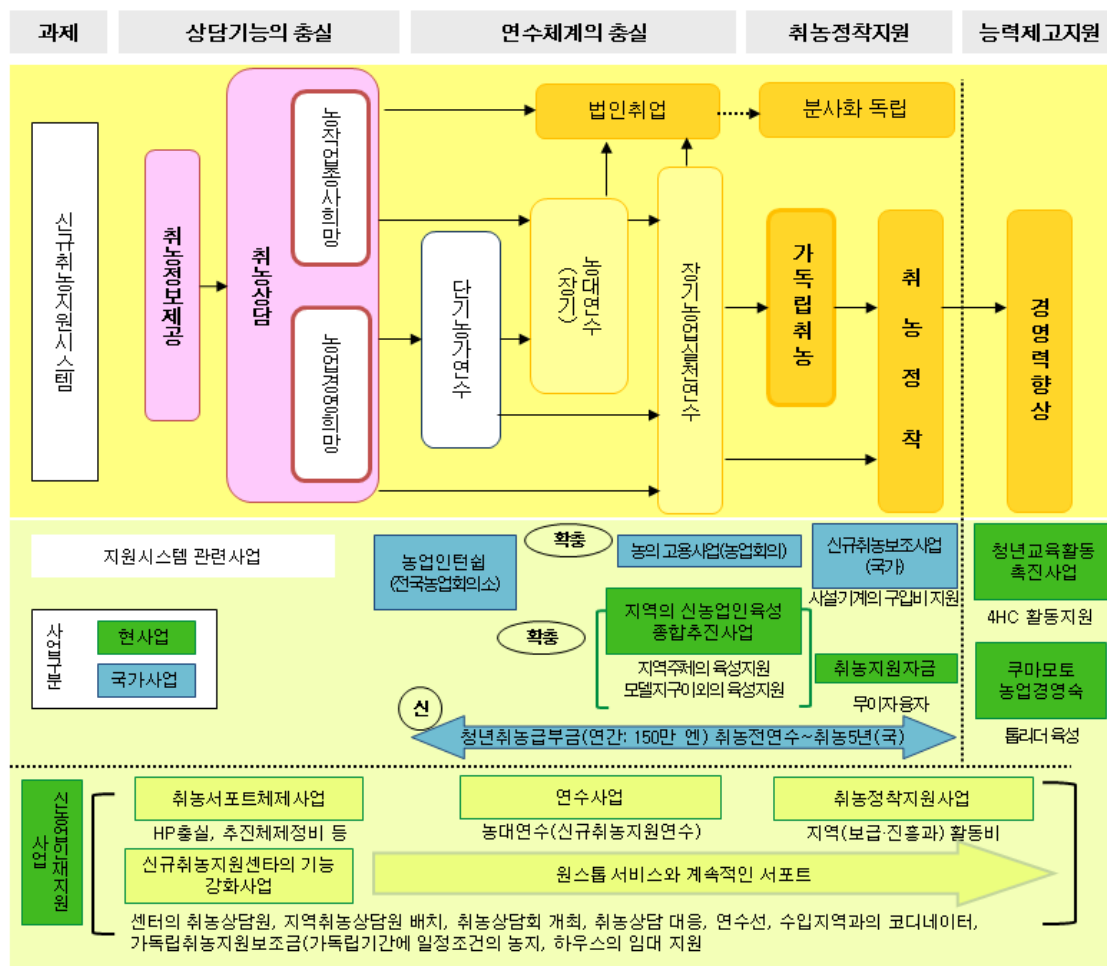
- JA중앙회에서는 취농 연수를 맡고 보급센터에서는 기술 지원. 구마모토에 11개 보급센터 있음.
- 불안정한 농업수익에 대한 대책으로 JA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따로 없음. 본인 특기 분야가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부수입(알바)을 하는 정도임.
- 집하장에서 알바로 시급 700엔 정도 주고 하는 일은 있음.

※ 구마모토현 신규취농자 면담

- 中島智美(나카지마 토모미) 氏. 27세.
- 이모부 땅을 임대(30아르).
- 취농 계기는 본래 자연이 좋고 환경을 지키는 일을 직업으로 택하고자 한 것에서 시작. 농업에 선뜻 뛰어들지는 못했으나 구마모토 학원 대학에서 야마우찌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결심.
- 본래 주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둬.
- Four Leaf 라는 기업에서 자금 지원을 받음.
- Four Leaf는 상품을 판매 하는 기업이나, 사회 환원 활동의 하나로서 자금 지원(교육, 환경 복지, 의료 네 개 분야에 환원 활동). 회사에서 지원하는 농장이 5-6개 정도 됨. 회사 세미나에 찾아가서 신청하고 선발되어 지원받음(3년 간 농약을 뿌리지 않았던 땅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하는 등 조건).
- 귀농 3년차인데 적자 상태. 좋은 때 월 5만 엔 매출(직판 위주 판매).
- 노동 투입이 적으면서 가격이 있는 작목을 생각하고 있으며, 가공도 고려 중. 지원받은 회사 회원들 대상으로 감자캐기 체험도 진행하였음.
- 향후 지금 하고 있는 작목 면적을 넓혀서 할 것(감자, 고구마 등). 넓히면 경제성 확보 가능할 것. 이 지역의 경우 방지가 많아서 땅을 구하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을 것으로 생각.
- 토지확보 등을 위해서 마을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 유지가 필요. 본인은 수전을 하지 않더라도 마을에서 수로 청소를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함.
- 농업을 시작하고 농업대학에 다녔음(주 2회 가량).
- 졸업생들이 연 2-3회 세미나 형식으로 모임 있음.

- 구마모토현 기쿠치군에는 신규취농자 지역 모임이 따로 없으나, 올해 추진하고자 이야기 중.
- 취농지원자금은 작년에 시에서 한 번 받았음(60만 엔).
 - 올해 150만 엔 자금지원 신청하려함. 신규취농자가 계획서를 낼 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조건을 좀 유동적으로 하였으면 함(시골에서는 구두로만 임대 that 이뤄지고 있는데, 경작지 주인의 도장이 필요하다는 사항 등).
- 신규취농자 모임이 없고 개인적으로 구마모토현 내 취농자들과 교류. 이러한 신규취농자 네트워크에 지원이 있었으면 함.

그림 3. 구마모토현 - 신규취농지원시스템(2012년도)



자료: 구마모토현

후쿠오카 현청 방문



키시마 농업 개량 보급 센터 방문



사가현 U턴형 농가 방문



구마모토 현청 방문



JA중앙회 소장 면담



구마모토 신규 취농자 농장 방문



큐슈대학 한국연구센터 방문

